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27(수) 14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. 27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
담당과장	조웅환 과장(044-203-4020) 최진영 과장(044-200-2211)	담 당 자	안진호 서기관(044-203-4021) 황유정 사무관(044-203-4025) 하원석 사무관(044-203-4023) 김형관 사무관(044-200-2227)
비고	※ 부처별 세부 담당자는 붙임 참고		

김부겸 국무총리,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

국민, 기업, 근로자, 정부 One-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

❶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

- ▶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-방역, 생산 차질 최소화
- ▶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K-브랜드에 기반한 新성장품목 약진
- ▶ 무역 금융 공급,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

❷ 관계부처 합동 「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」 발표

- ▶ 물류, 원자재 가격, 부품수급 3대 현장애로 집중관리
- ▶ 무역금융, 온라인 마켓팅 지원을 통한 수축 역량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
- ▶ GVC 재편, NDC · ESG 확산, 비대면 경제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

❸ 기업·지자체 등과 토론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

- ▶ 수출물류 애로 지원 확대,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
- ▶ 농수산품 수출 확대 방안, 콘텐츠 플랫폼·유통기업 지원 확대 등

□ 정부는 10월 27일(수) 오후 2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에서 제5차 「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○ 오늘 회의는 **코로나19**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**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(299일)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**하고, **무역 2조 달러 달성**을 위해 풀어야할 **수출현장애로**와 **미래 무역과제**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이날 정부는 현재의 **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**하고, **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**에 대응하기 위한 **'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'을 발표**하였습니다.

○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**물류애로, 원자재 가격 급등, 부품수급 차질** 3대 애로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,

○ 우리 수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**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, 탄소중립과 ESG 경영, 비대면, 디지털 경제** 등 교역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**미래 전략을 제시**하였습니다.

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의 의미

<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>

①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-방역과 생산 차질 최소화

② 글로벌 초격차 유지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

* (반도체)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, (조선) 수출점유율 20%, (스마트폰) 시장점유율 1위 등극

③ K-브랜드(한류)와 기업 혁신에 기반한 新성장 품목의 약진

【 신성장 품목들의 주요 실적 】

구 분	빅3 품목			이차전지	농수산식품	화장품
	시스템반도체	바이오헬스	전기차			
9월 누계 수출액	282	116	47	65	81.4	68
증가율(%)	31.4	22.2	43.4	19.8	13.6	26.3
역대 1~9월 순위	**1위**	**1위**	**1위**	**1위**	**1위**	**1위**

④ 무역금융 공급 확대,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

* '21년 255조원 무역규모 공급, 기업인 출입국 및 백신 우선 접종 지원

⇨ One-Team 코리아가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내 무역 1조불 기록

□ 이번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1 **(무역 1조불의 벽 극복)** 현재까지 **무역 1조불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,**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**금년도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**하고 있습니다.

○ 우리 산업의 **경쟁력 향상에 기반**한 **금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불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**

2 **(수출 구조 혁신)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** 반도체, 자동차,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**글로벌 경쟁력 상승**과 함께 **식품, 화장품 등 新성장 품목의 약진**이 두드러집니다.

○ **최초로 무역 1조불을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시, 13대*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**가 82.1%에서 73.9%('21.9월누계 기준)로 약 8%p 낮아졌습니다.

* 반도체, 석유화학, 석유제품, 일반기계, 자동차, 화학, 철강, 차부품, 디스플레이, 컴퓨터, 무선통신기기, 섬유, 가전

○ 같은 기간동안 **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,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**하고, 2차전지, 바이오 등의 품목이 **주력 품목으로 추가**되는 등 **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,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습니다.**

* 수출액수 비교 ('11.1~9→'21.1~9) : (화장품) 6.1억불 → 68.3억불
(의약품) 9.2억불 → 60.4억불

3 **(수출 저변확대의 새로운 가능성)**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, **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*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(1~9월) : 8.5억불(75%↑), 기업수 : 8,144개사(42%↑)

○ **비대면, 플랫폼 경제 활성화**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로, 앞으로 **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**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 주요 내용

(1) 3대 현장 애로(물류, 원자재 가격, 부품수급)에 대한 밀착 관리

❶ 민관 협업을 통해 **물류 애로를 집중 해소**해 나가겠습니다.

► 올해 4분기까지 **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**하고 **화물기 운항**(미주항로)**도 '21년 1만편까지 늘려**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.

► **운임·정책금융 지원을 '22년도에도 지속 추진**하겠습니다.

* '21년 물류바우처 142억원(추경),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 1,500억원 규모 지원

► ①**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**하고, ②**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**과 ③**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**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① 3개소 신설(로테르담·바로셀로나·자바) 및 지원규모 2배 확대('21년 640개 → '22년 1,280개)

② 업종별 협회-포워더-소형화주간 장기계약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 연구용역 중(~'21.12월)

③ 물류정보(선박일정, 터미널현황 등) 및 디지털 물류 솔주기 서비스 제공,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공표('21.11~)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('~22)

❷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,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► **할당 관세 지원**을 검토하고, **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**(수은, 무보) **지원 규모를 '22년 5,500억원으로 확대**하겠습니다.

* (할당관세)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LNG, LPG, 원유 및 기초원재료 등

* (원자재 구매자금 지원) 무보 수입보험(2,500억원), 수은 원자재 구매기업 운영자금 지원(3,000억원)

► **신속 통관 지원과** 함께 **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, 핵심부품 R&D를 확대**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**공급망 관리를 강화**하겠습니다.

*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지원방안 :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협력 지원, AI 가속기,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R&D 지원 확대

(2)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및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

❶ 바이오, 농수산식품 등 **新성장품목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**하겠습니다.

<주요 신산업 맞춤형 애로 해소방안>

바이오	‣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마련 ‣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및 해외 인허가·인증 지원 강화
농수산식품	‣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제공 및 대응 강화 ‣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통관애로 해소 지원
콘텐츠	‣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지원(7개국 8곳→9개국 10곳)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 개최
이차전지	‣ 기술개발, 국내 소재기업 투자촉진 및 재활용 생산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 확보
플랜트	‣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·건설 수주 촉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-무보 공동지원 활성화(가칭:「One Team Korea」프로젝트)

❷ **전시산업 정상화**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► 「**단계적 일상회복**」 시기에 **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**하고, **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**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
► '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,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**전문 전시회***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

* (예시) 부산국제기계대전,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, 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

(3) 수출총력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

❶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► GP 전용관*과 **오픈 이노베이션 구축**을 통해 **3대 B2B 공공 플랫폼****을 **고도화**하고, **코세페** 등과 연계한 **온라인 수출 붐**을 조성하겠습니다.

*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

** ①바이코리아(코트라), ②고비즈코리아(중진공), ③트레이드코리아(무협)

► **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**('22년 257조원 이상)하고, **3년 만기 보증상품*** **도입과 車부품, 플랜트** 등 **업종 맞춤형 지원**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'21.4분기 무역금융 47조원의 신속한 공급 및 금년(255조원)대비 무역금융 공급 확대

** (기존) 1년 수출신용보증 → (개선) 빅3 등 신산업, 소부장 대상 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

❷ 소상공인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, 新시장 FTA를 확대하겠습니다.

► '**22년 1,300개社*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성사를 지원**하고, **스타트업-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**을 위해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국내 수공예 장인 수출 지원(300개社), 소상공인 디지털 수출 全 과정 밀착 지원(1,000개社)

►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**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**하여 선용품 중소기업 1,600여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

* 무역금융,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선용품 시장 성장 기대(現 1.9조원, 매년 10% 이상)

► 한-필 FTA, 한-메르코수르 TA, 한-UAE CEPA 등 新시장 FTA를 확대하고,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

(4)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무역 전략 마련

❶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

► **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**으로 공급-수요 매칭,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**협력모델을 구체**화하여 주요국과 **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**하겠습니다.

► 기술별·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,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**新 무역안보전략*을 수립**하겠습니다.

* 산업기술보호, 수출통제, 외투심사 3대 분야 중심

❷ 환경,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►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**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전환**을 지원하겠습니다.

* 조특법상 R&D·시설투자 우대대상인 신성장·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추가('22.1월)

**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신설('21, 4분기)

► 탄소관련 해외 규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노력과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► 脫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NDC 해외감축 민관공동 추진위원회(가칭)를 설치하여 **3대 전략시장 해외감축 프로젝트를 발굴**하고, 그린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

* 수출 바우처(50억)를 통해 그린 산업 기자재·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('22년 70개社)

► 중소기업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**중소기업형 K-ESG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고, **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***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, 수은,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, 코트라 지원 우대

❸ 디지털,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► **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新무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**하고, 서비스 통계 구축과 수출 실적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.

*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실적 인정 범위, 인정기관 확대(무협→업종별 협단체)

** 외환거래자료 등 관계기관이 관리 중인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시스템 구축

►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, **전자상거래 전용창고,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**하겠습니다.

►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R&D 제도를 개선하고, **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**하겠습니다.

* 서비스 수출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, 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

□ 대책 발표 이후 총리 주재로 수출 기업과 지자체와 함께 애로사항과 미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
○ 기업들은 ❶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, ❷식품,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, ❸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.

□ 참석한 **각 부처 장·차관 및 수출유관기관장 등**은 **건의사항** 하나하나에 대해 **정부·수출유관기관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**하였고, **추가적 조치**가 필요한 사항들은 **적극 검토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“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루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,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도 직면하고 있다”고 하며

○ “향후 더 많은 중소,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**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**,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**디지털경제동반자**

협정* 등 **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**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

*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, DEPA

※ 금일 개최된 제5차 「**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**」 진행내용은 추후 **KTV SNS**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【붙 임】 1. 5차 「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」 개요
2.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
3. 부처별 세부 담당자

【별 첨】 1. 「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무역 기반 확충방안」
2. 「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」
3. 「농수산식품 수출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」
4. 「디지털·ICT 산업 수출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」
5. 총리 인사말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안진호 서기관(☎ 044-203-4021), 황유정 사무관(☎ 044-203-4025), 하원석 사무관(☎ 044-203-42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제5차 「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」 개요

□ 행사개요

○ (추진배경) 작년 하반기부터 **수출 호조세가 지속**되면서 **무역 역사상 최단기 내 1조불 달성** (10.26(화) 13:53)

- 범부처 **수출 컨트롤 타워인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**하여 그간의 **정책적 노력을 격려하고, 금년 성과를 점검**

○ (일시/장소) 10.27(水) 14:00~15:30, **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**

○ (참석자) **국무총리, 관계부처 장관**(기재, 산업, 해수, 중기, 과기, 농림, 국토, 복지, 문체, 관세 등), **지자체 부단체장**, 무보·코트라·중진공·컨진원 등 **지원기관, 무협·중기중앙회 중소·중견 기업 대표** 등 45명 (현장 31, 화상 14)

□ 행사 주요내용

① **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**(국제무역통상연구원)

② **수출 현장 애로 해소**(물류, 원자재 등) 및 **미래무역기반 확충 방안**(산업부)

③ **농수산물, ICT 등 新품목 수출성과 및 향후 계획**(농림부, 과기부)

□ 세부 행사일정

시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3	'3	**개회선언 및 국기에 대한 경례**	
14:03~14:06	'3	**무역 1조불 기념 영상 시청**	참석자
14:06~14:11	'5	**총리 모두말씀**	
14:11~14:14	'3	**무역협회장 인사말씀**	
14:14~14:19	'5	**산업부 장관 인사말씀**	
14:19~14:39	'20	**안건 발표** ①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 성과 분석 ②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무역기반 확충 방안 ③ 신성장 품목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	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산업부 무투실장 농림부, 과기부 담당실장
14:39~15:25	'46	**참석자간 토론**	지자체, 경제단체 발언 포함
15:25~15:30	'5	**총리 마무리말씀**	

붙임 2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.

우리 무역규모는 **어제 사상 최단기간에 1조 달러를 달성**하였습니다.
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 속에서 이뤄내
더욱 값진 성과입니다.

1. 먼저, 무역 1조달러 성과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❶ 우리 무역은 **위기 극복을 넘어**,
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

과거 무역 1조 달러를 가장 빠르게 달성했던 2018년(11.16일) 보다
20여일 앞당겨 **299일만에 1조 달러를 달성**하였고,

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가며 수출 호조의 흐름을
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 결과, 올해 **연간 무역규모와 수출액 모두 2018년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***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역대 무역규모 순위(억 달러) : ①('18년) 11,401, ②('14년) 10,982, ③('11년) 10,796
역대 수출액 순위(억 달러) : ①('18년) 6,049, ②('17년) 5,737, ③('14년) 5,727

❷ 이러한 성과의 원동력은 **근로자와 기업인, 국민과 정부가 합심**하여 **수출 회복에 총력**을 기울인 데 있습니다.

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동참과
산업 현장의 모범적인 방역 덕분에
국내 제조업 기반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
해외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.

정부는 일본 수출규제, 보호무역주의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
대외 무역질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
기업인 출입국, 물류 차질 등
수출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.

❸ 그 결과,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 **가장 빠르게**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, 그 중심에 무역이 있었습니다.

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G7 국가를 상회*할 전망이며,
이러한 경제성장에 **수출이 기여하는 정도**는
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

* '20~'21년 평균성장률(%, IMF) : (세계)1.4 (선진국)0.4 (韓)1.7(G7 모두 상회) (美)1.3 (캐)0.2

국가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
3분기 누적 **외국인투자**도 **역대 2위 실적***을 기록하였는데
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.

* 3분기 누적 신고액(억 달러) : ①('18) 192, ②('21) 182 / 도착액 : ①('18) 123, ②('21) 117

❹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

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
자동차, 선박, 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과
의약품, 식품 등 새로운 유망품목의 수출이 모두
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습니다.

* '21.1~9월 수출증감률(%) : (자동차) 33.0, (선박) 13.9 (기계) 11.2, (의약품) 24.7, (식료품) 14.6

전남, 강원, 전북 등 지역의 **수출 증가율이 수도권을 상회**하여
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.

* '21.1~9월 수출증감률(%) : ①전남(53.3), ②강원(40.5), ③전북(35.6), ④서울(34.7) 順

2. 그러면, 현재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 진단해보겠습니다.

우리 수출 경쟁력은 양적 성장을 넘어
품목, 시장, 주체, 방식 4대 측면에서 **질적으로 더 단단해**졌습니다.

❶ **[품목]**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주력품목 뿐만 아니라 **신산업, 소비재** 등으로 **수출품목이 다변화**되었습니다.

수출 포트폴리오를
무역 1조 달러를 최초로 달성했던 2011년과 비교해보면,
13대 주력품목의 집중도가 약 8%p 낮아졌습니다.

품목별로
반도체, 조선, 스마트폰 등 **주력산업**은
세계 시장에서 **글로벌 1위 경쟁력을 선도**하고 있고,

* (반도체) 매출 1위('21.2Q), (조선) 고부가船 63% 수주('21.1~7월), (스마트폰) 시장점유율 1위('21)

친환경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 등 **신산업**이
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

K-팝, K-콘텐츠 등 한류를 바탕으로 **농수산식품, 화장품, 가전** 등
소비재 품목의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

* '21.1~9월 수출액(억 달러) : (농수산식품) 73(+12.0%), (화장품)68(+26.3%), (가전)63(+27.5%)

특히, 한국의 문화와 일상이 세계인과 공유되면서
K-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,
우리 제품·서비스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
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

❷ **〔시장〕** 미, 중, EU 등 기존 3대 시장 외에도 **신남방**, **중남미**, **중동** 등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.

거대 시장이자 생산기지인 **신남방 수출은 역대 최고치**를 기록중이며
한-중미 FTA 체결('21.3월 발효)에 힘입어
중남미 **수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**되었습니다.

* 신남방 수출액(억 달러): ('20) 1,010 → ('21.1~9) 887 (+21.7%, 전년동기비)
중남미 수출증감률(%): ('21.3)1.1→(4)41.1→(5)119.3→(6)106.3→(7)40.6→(8)73.1→(9)26.5

중동 지역도 한국의 문화와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.
지난 주 **두바이 엑스포**를 다녀왔는데,
한국관에 약 10만명의 참관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.

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지만,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
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나 기술패권 경쟁 등
외풍에 흔들림 없는 무역 구조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.

❸ **〔주체〕** 중소·중견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.

올해 9월까지 **중소기업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**를 갱신하는 등
수출 회복에 큰 버팀목을 담당하였습니다.

* '21.1~9월 누계 수출액 : 853억불 (전년동기비 18.5% ↑)

중소·중견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
10년 전보다 2.8%p 상승하며,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❹ **〔방식〕 디지털 무역, 온라인 수출** 등 수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.

비대면·플랫폼 경제 트렌드와 우수한 IT·디지털 역량이 결합해
9월까지 **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이 75%나 증가**하고,
참여 기업수는 40% 이상 확대되었습니다.

변화하는 미래 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.

3. 마지막으로, 우리 무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
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루었지만,

수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
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고민해 나갈 과제도 많습니다.

특히, 정부는 역량 있는 중소·벤처기업이
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
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,

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
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* 등 **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**에도
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*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, DEPA

탄소중립,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**도전과 기회**도
직면하고 있습니다.

특히,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.
이러한 도전을 미래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
기업의 부담은 낮추고, 투자와 혁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극복한 **"무역강국"의 자신감을 바탕**으로
미래 무역구조에 선제적으로 전환해
무역 1조불 성과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붙임 3 부처별 세부 담당자

기 관	부 서	담당자	연락처
국조실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최진영 과 장	044-200-2211
		김형관 사무관	044-200-2212
		김한수 전문위원	044-200-2220
산업부	무역정책과	조웅환 과 장	044-203-4020
		안진호 서기관	044-203-4021
		황유정 사무관	044-203-4025
		하원석 사무관	044-203-4023
	무역진흥과	이민호 사무관	044-203-4017
		윤한성 사무관	044-203-4035
	수출입과	이영석 사무관	044-203-4049
기재부	산업경제과	심민준 사무관	044-215-4535
과기정통부	정보통신산업정책과	김희선 사무관	044-202-6222
법무부	출입국심사과	배덕환 사무관	02-2110-4041
국토부	해외건설정책과	이정식 사무관	044-201-3517
	물류정책과	곽병철 사무관	044-201-3998
문체부	문화산업정책과	강여원 서기관	044-203-2422
	융합관광산업과	강권수 사무관	044-203-2897
복지부	보건산업정책과	반윤주 서기관	044-202-2903
	보건산업진흥과	변수원 사무관	044-202-2965
농림부	수출진흥과	장다은 사무관	044-201-2172
해수부	해운정책과	김한울 서기관	044-200-5722
		양도형 사무관	044-200-5725
		김현우 주무관	044-200-5723
중기부	글로벌성장정책과	이권재 서기관	042-481-6813
		심연재 사무관	042-481-4473
관세청	통관물류정책과	조광선 사무관	042-481-7811
		김홍성 주무관	042-481-7814